

장외시장 거래대금 반토막 ‘공모주 거품’ 논란에 급감

10월 한달간 일평균 47억 거래
8월 일평균 거래금 보다 36% ↓
누적거래대금은 43%나 줄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 주식 시장 거래대금이 급감했다. 장외 시장 대어로 불렸던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 등이 상장 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기업가치에 대한 의구심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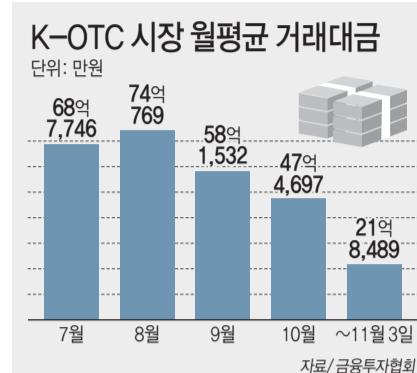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 월 한 달간 K-OTC 장외주식 시장 일 평균 거래대금은 47억4697만원이다. 유동성 장세에 장외주식이 활황을 맞 이했던 8월(74억769만원) 일평균 거래 대금보다 36% 줄어든 수치다. 10월 누적 거래대금은 901억9256만원으로 8월 (1581억8175만원)에 비해 43% 가량 하락해 반토막이 났다.

앞서 K-OTC는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제도화한 국내 장외주식 시장이다. 비교적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기업에 대해 투자 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통상 기업의 상장 전일까지 장외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혜택이 있다.

SK바이오파트너스를 시작으로 공모주 열풍이 이어지자, 장외주식 시장을 통해 IPO를 앞둔 기업의 주식을 미리 선점하려는 수요가 늘어났다. 장외주식 시장에서는 과도한 청약 증거금 납입 없이도 상장 전 주식을 사고팔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K-OTC 시장에서의 연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8월 K-OTC 시장이 개설된 이후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장외시장 대어로 불렸던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등이 상장 후 주가 하락을 이어가자 투자자들이 기업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잇따라 발생하는 공모주 거품 논란에 장외주식 시장의 인기도 시들해졌다. 특히 지난달 15일 빅히트의 경우 코스피 시장 첫날 잠시 파상(시초가 2배, 상한가)으로 장중 35만1000원을 기록했



으나 14만원대로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지나친 시장 과열이 결국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가져온 것이다.

장외시장에서도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솔루엠 등 IPO를 앞둔 인기 종목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두나무가 삼성증권과 협력해 제공 중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현재 시가는 9만5000원, 시가총액은 34조6841억원이다. 4대 금융지주(신한·KB·우리·하나금융지주)의 시가총액 합산이 44조원에 맞먹는데, 실제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에 비해 과하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크래프톤 154만5000원 ▲SK바이오사이언스 135만원 ▲솔루엠 2만3100원 등이 고평가 논란을 겪고 있다.

또 미국 대선 이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증시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쳤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공모주 영향, 미국 대선에 따른 증시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연쇄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상장 종목은 상장 종목에 비해 정보가 적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상장사에 비해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 브로커들이 투자자들에게 허위 매물을 이용해 접근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환태 부장은 “비상장 주식 시장은 정보가 제한적이고, 공시 사항이 최소화돼 있다”며 “사설 사이트나 불법 브로커보다는 K-OTC 시장 같은 제도권 장외시장 이용하거나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신영증 홈페이지 전면개편… 편의성 제고

대고객 서비스·소비자보호 개선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 최적화

신영증권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6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는 고객에게 회사의 주요 서비스를 소개하는 역할에 집중했다. 특히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 APEX패밀리오피스, 아트 앤 컬처(Art & Culture) 등 대고객 서비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개선했다.

처음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메뉴를 새



신영증권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롭게 구성했다. 또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버전을 지원해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한다.

/박미경 기자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퇴출 임박 신라젠·헬릭스미스도 ‘초긴장’

거래소, 인보사 사태로 상폐 결정
소액주주 향의에 이의신청 가능성
신라젠도 이달 중 기심위 심사 앞둬
헬릭스미스는 관리 종목 지정 위기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켰던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코오롱티슈진과 마찬가지로 운명의 갈림길에서 있는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애기다. 거래재개를 기다려온 소액주주들의 보유주식이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모두 국내 바이오업계 대표 격으로 평가됐던 종목들인 만큼 바이오주 전체의 신뢰가 주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오롱티슈진의 상폐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쳤다. 티슈진이 성분 변경 등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식품의약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상폐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회사측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소액주주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거래 정지 중인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거래 정지 전날 기준 4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6만4555명으로 지분 34.5%를 갖고 있다. 자신을 코오롱티슈진 주주라고 소개한 포털사이트 종목토론게시판 이용자는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감과 대기업으로 볼 수 있는 코오롱의 네임밸류를 믿고 투자했는데 절망적인 마음”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날 자회사 상폐 여파에 코오롱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전일보다 각각 4.29%, 7.5% 추락한 채 마감했다. 두 회사는 각각 코오롱티슈진의 지분을 30.19%, 12.55% 보유중이다.

코오롱티슈진을 덮친 상폐의 공포는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여는 신라젠 소액주주들.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

신라젠과 헬릭스미스에 엄습했다. 신라젠도 빠르면 이달 중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다. 만일 결론이 상폐로 나오면 코오롱티슈진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 신라젠은 지난해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업계에서는

‘거래재개’나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확률을 높게 보고 있지만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라젠 관계자는 “모 회사처럼 제품 문제나 회계 부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부도덕한 행태를 저지른 경영진이 해임된 만큼 리스크는 더 없다. 기심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헬릭스미스는 유상증자가 시급하다. 올해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후보인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3년 중 2년간 세전 순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헬릭스미스의 지난해 손실액 비율은 54%로 집계됐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50% 밑으로 낮춰야 한다.

사모펀드에서 비롯된 투자 손실이 넘어야 할 산이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달 공시를 통해 2016년부터 5년간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와 사모사채

등 고위험 자산에 2643억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했다. 이중 400억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3분기 보고서에 여기서 비롯된 투자 손실이 대거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주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들로 인해 추락한 신뢰가 바이오 주 투심 전체에 앙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코오롱티슈진은 한때 각각 코스닥 시가총액 1, 2, 4위를 기록했던 대형주들이다. 지난해 바이오주 열풍을 주도했던 대표 종목들이라는 얘기다.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 열풍이 불었을 당시 많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각기 다른 의혹에 휩싸이며 결과적으로 신뢰를 배반한 꼴이 됐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과 신라젠은 바이오 벤처가 축발한 대표적 사례”라며 “바이오 종목은 제반 이슈와 의약품 심사 동향에 따라 개별종목별로 천지차이인 만큼 대형주라고 할지라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신라젠의 매수추천보고서를 냈던 한 제약·바이오 담당 연구원은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을 비롯한 비리 혐의까지 포착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사업부문 외적으로 발생한 이슈라고 할지라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LH-감정원, 임대차 분쟁조정위 6개소 추가 운영

접근성 위해 서울·인천 등 신설
신청 수수료 1만원~최대 10만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감정원과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는 대한법률구
조공단산하6개
소에서 운영 중

이였으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올해 7월 계약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

이에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 전문기관 LH와 한국감정원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게 됐으며, 올해 우선 6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

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됐고, 신청 수수료도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전문기관인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인천을 포함해 충북과 경남 등 3개소, 내년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실수요자들이 주거·생업의 안정과 건강한 부동산 시장질서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964@